

청년층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사회복지정책적 제언

배나래^{1*}, 소권섭²

¹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²건양사이버대학교 보건의료복지학과

Familism Values and Social Welfare Policy Implications of Young Adults'

Na-Rae Bae^{1*}, Kwon-Seob So²

¹Dept. of Social Welfare, Konyang Cyber University

²Dept. of Healthcare & Welfare, Konyang Cyber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전, 충청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 436명을 대상으로 청년세대의 가족주의 가치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다. 성별은 남학생(44.0%)에 비해 여학생(56.0%)이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20세 이하가 34.4%로 가장 많았고, 21세~22세가 30.7%, 23세~24세가 17.0%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저학년인 대학교 1학년과 2학년은 61.9%로 고학년인 대학교 3학년과 4학년에 비해 많았으며, 종교는 '없다'라는 응답한 청년층이 42.7%로 가장 많았다. 형제자매 수는 '형제 자매가 2명이다' 라는 응답이 69.7%로 가장 많았다. 둘째, 조사대상자가 지각한 가족주의 가치관 수준을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효의식이 4.3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부부평등의식이 3.51점, 혈연공동체의식이 2.87점, 가족우선의식이 2.64점, 부계가족영속화가 2.4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전반적 가족주의 가치관은, 연령변수($F=11.08, P<.001$)와 학년변수($F=4.70, P<.01$)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familism values of the young gener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on 436 university students living in Daejeon and Chungcheong area.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by gender, There were more female students (56.0%) than male students (44.0%). 34.4% of the respondents were under age 20, followed by 21 ~ 22 years old (30.7%) and 23 ~ 24 years old by 17.0%. As for the grade, 61.9% of the first and second graders were more than the third and fourth graders. In the case of religion, 42.7%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y had no religion, followed by Buddhism (29.1%) and Christianity (19.5%). 69.7%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y had two siblings. Second, when looking at the level of familism values perceived by the survey subjects, the Filial piety (4.35) was the highest, followed by Equality Consciousness of husband-wife (3.51) and Sense of Community in Blood Relationship (2.87), Family-First Consciousness (2.64), and succession of Patrilineal Family (2.41). Third, the overall Familism Value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variable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age groups ($F = 11.08, P <.001$) and the grade ($F = 4.70, P <.01$).

Keywords : Equality Consciousness of Husband-Wife, Familism Values, Filial Piety, Sense of Community in Blood Relationship, Succession of Patrilineal Family

1. 서론

가족의 학문적 의미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부부에 의

해서 과생되어진 자녀들과 주거지를 공유하는 경제 및 생활공동체로 설명한다. 가족은 개인이나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인상적인 변화를 겪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

*Corresponding Author : Na-Rae Bae(KonYang Cyber Univ.)

Tel: +82-42-722-0081 email: victory0302@kycu.ac.kr

Received February 12, 2019

Revised February 21, 2019

Accepted March 8, 2019

Published March 31, 2019

의 역동적인 변화로 인하여 사회구조적 변화를 가져 오기도 한다. 즉 사회와 가족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를 지닌다.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고, 사회를 반영하는 기본적인 투사체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 물결 속에서 가족에 대한 의미와 가치관이 급속하게 변화했다. 특히 기존세대들이 가졌던 가족주의 가치관, 예를 들어 결혼은 꼭 해야 한다. 가족부양은 반듯이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 자녀출산은 중요한 가족의 과업이다 등 가족이테올로기가 오늘날 사회환경의 변화, 가치관 변화 등으로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가족의 개념은 가족은 양친이 계셔야 하며, 양친이 출산한 자녀가 있고 가족들은 모두 한집에 살아야 한다는 등의 정상가족이테올로기를 인정하고 공유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가족형태의 다양성, 가족의 개념의 변화는 가족의 의미를 유연화 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박충선[5]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발전 속에서 국가차원의 가족정책의 개입으로 단기간에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변화시킨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족계획사업의 경우 정부주도 하에 가족인구의 감소를 위해 가족계획을 실시 하였고, 성공적인 진행을 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심각한 성비 불균형현상을 초래 하였으며 사회적 문제까지 유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가족과 관련한 가치관의 변화는 자연발생적으로 변화의 길을 걷기도 하지만, 인위적인 환경의 개입으로 변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가족가치관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가족에 대한 의식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관념이기 때문에 쉽게 변모하고 변질되는 가치는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의 전통 가족가치관의 특징은 효사상과 가부장제로 설명할 수 있다. 가족주의에서 효사상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일이 핵심이 되며, 가부장제는 할아버지, 아버지와 아들에게로 이어지는 부계혈통 체계로서 여성은 남편의 후손을 생산하기 위한 존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근대화 과정에서 효에 대한 가치관은 퇴색되었으며, 남성중심의 가부장제는 여성의 학력수준의 향상과 경제력 확보로 남성 종속적인 존재에서 독립적 존재로 인정받아 가부장제가 사회적으로 구시대적인 가치라고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가족주의 가치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 시대에서 변화를 맞고 있지만 대대손손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기본적 가치와 규범 중에서 우리사회의 결정적 가치로 이어져 내려오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세대의 성장과정에서의 달라진 가족주의 가치관을 살펴보고자 하며, 연구 결과를 통해 디지털환경에서 성장한 청년세대에게 가족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여 청년세대를 위한 가족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세대의 변화

세대는 세(世)와 대(代)가 결합된 단어로, 세(世)는 사람의 전 생애를 뜻하고, 대(代)는 선대와 후대를 잇는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근대화 이후 세대를 베이비부머세대, X세대, N세대, Z세대로 정리 해볼 수 있다. 첫 번째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1955년에서 1963년까지 출생한 세대이다. 이 세대를 베이비부머 세대라고하며 혹은 전후 세대라고도 한다. 한국전쟁 직후 어려운 사회경제상황 속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고도 경제 성장기에 청년기를 보냈으며 한국의 민주화를 앞당기는데 큰 역할을 한 세대이며 문화와 소비부분에서도 자발적이고 확고한 정체성을 보이며 한국사회에 큰 변화를 이끌었던 주역이었던 세대이다. 두 번째 세대는 1965년에서 1976년에 태어난 X세대이다. 대부분 핵가족체제에서 성장했으며 베이비부머 세대와는 달리 사회 공동 가치적 문제보다는 개인으로서 어떻게 잘 살아가는가에 대한 관심과 가치를 지닌 세대이다. X세대는 물질적으로 풍요한 상황을 누리며 감성적인 소비문화, 가치를 창조하는 대중문화를 공유하였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고방식과 평등을 지향하고, 적극적인 레저활동과 유행에 민감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다[1]. 세 번째 세대는 1977년에서 1997년에 태어난 세대로 베이비부머세대의 자녀세대를 일컫어 에코세대 혹은 N세대라고 한다. 에코(Echo)는 메아리라는 의미로 베이비부머세대만큼 출산율이 많았다고 하여 명명되어졌다. 에코세대는 이전 세대가 닦아놓은 환경 속에서 풍요를 온 몸으로 만끽하며 풍족한 환경에서 생활하였으며, 새로운 트렌드에 민감하며 컴퓨터와 친숙한 세대이다. 또한 에코세대는 첨단 정보 기술과 함께 성장해서 IT 기기 활용능력이 우수하여 첨단 정보 기술에 익숙한 문명 세대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Z세대인데, 1995년 이후 태어난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다. 서구에서는 대부분 1990년 이후에 태

어난 세대를 Z세대라고 하기도 한다. Z세대는 인터넷이 전 인류에게 광범위하게 활용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출생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기와 인터넷으로 둘러싸여 성장해 왔다. 이들 세대는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며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하며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특징이며, 어떤것이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가장 빠른시간에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특징이 있다. Z세대는 어릴 때부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며, 오프라인 구매보다 온라인 구매에 익숙하며,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문점을 해결하고 정보를 취득하고, 심지어는 인간관계를 맺는 등 과거의 세대와는 다른 특징을 지닌다.

2.2 가족주의 가치관

가족은 문화인류학적으로 자녀출산과 자녀양육이라는 재생산의 주된 역할을 하는 사회구성체의 기본이 되는 집단이다. 전통적인 가족의 의미는 혈연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가치공동체의 특징을 지닌다[1]. 그러나 오늘날 가족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저출산으로 인한 재생산기능의 약화, 자녀에 대한 의미와 인식변화, 자녀수감소로 인한 양육 기능의 약화, 한국의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확산됨에 따라 경제적 공동체 혹은 경제적 부양기능의 약화가 나타나고 있다[2][3]. 그러나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에서도 가족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가족가치관은 본래 가족공동체의 고유한 관념과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물론 개별가족마다 독특한 삶의 방식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에 대한 태도, 가치, 관념체계를 가족주의 가치관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가족주의 가치관은 과거 조선시대 유학사상을 근간으로 하여 전 세대에 걸쳐 지켜야 할 사회규범으로 계승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우리의 삶 전반에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도덕적 윤리와 가치 판단의 척도로 내려오고 있다. 가족주의 가치관(Familism)은 가족의 가치의식이나 판단이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가족의 이익을 우선시 하여 가족공동체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가치의식이라 할수 있다. 가족주의 가치관은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가치지향적이고 바람직하고 보편적이며 영속적인 신념이다. 이러한 신념은 가족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속하게 한다. 그러나 가족주의 가치관은 시대와 문화적

환경과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족주의 가치관은 가족공동체를 타 집단보다 우선시 하며 부계가족원리를 근간으로 가족공동체에 대한 가치가 친가공동체까지 관심을 두는 가치를 말한다[4]. 가족주의 가치관은 모든 것은 가족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실천하고 결정하는 태도이다. 최근 개인중심적 가치관의 확산으로 가족주의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가족주의 가치관의 변화는 사회구성원의 고학력화와 관련이 깊다. 학력이 높아지면서 가족공동체를 우선에 두는 태도에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나 자아실현에 삶의 중심가치를 두는 경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가족 생애주기 보다 개인 생애주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도 과거 가족주의 가치관을 구성하는 변수는 남아선호사상, 아들의 필요성, 재산상속의식, 부계가족의 영속화, 효의식, 형제자매와 친척집단의 사회경제적 공동체의식 등이었다면[5], 최근에 가족가치관의 하위영역을 결혼에 대한 가치관, 결혼에 대한 태도, 자녀에 대한 가치관, 부모 부양의식, 부부평등의식, 성역할 등의 복합적인 개념으로 확대 되었다. 이는 과거에 가족에 대한 개념을 혈연중심, 부계중심주의 의미에서 혈연이 아닌 다양한 가족형태의 등장으로 정서중심적 가치중심주의로 가족의 개념 범위가 확대 변화되었음을 알수 있다[5]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대전, 충청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층 남녀를 대상으로 2016년 9월 3일부터 11월3일까지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는 연구자가 연구대상 청년층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수집한 436명의 유효한 설문을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3.2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3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청년층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둘째, 청년층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3.3 측정도구

연구를 위해 사용된 측정도구는 청년층들의 일반적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사회인구학적 변수인 성별, 연령, 학년, 종교 등 4개변수와 가족주의 가치관[2]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가족주의 가치관은 기존의 선행연구 논문들[2][3][4]에서 사용된 문항 중 적절한 14개 항목을 선택하였다. 하위역역으로는 가족우선주의(3문항), 부계가문의 영속화(4문항), 효의식(2문항), 혈연공동체의식(2문항), 부부평등의식(3문항)이다.

가족주의 가치관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보수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을 가졌음을 의미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개방적이고 유연한 가족주의 가치관을 지님을 말한다.

4. 연구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성별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20세 이하, 21세~22세, 23세~24세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대학교 저학년인 1학년과 2학년의 비율이 대학교 고학년인 3학년과 4학년에 비해 많았다. 종교는 '없다'라고 응답한 대학생이 가장 많았고, 불교, 기독교의 순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의 수는 '형제 자매가 2명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	Division	N(%)
Gender	Male	192(44.0)
	Female	244(56.0)
Age	Under 20	150(34.4)
	21~22Years	134(30.7)
	23~24Years	74(17.0)
	25~26Years	55(12.7)
	27 Years Old or Older	23(5.3)
Grade	1 Grade	151(34.6)
	2 Grade	119(27.3)
	3 Grade	84(19.3)
	4 Grade	82(18.8)
Religion	Catholic	32(7.3)
	Christian	85(19.5)
	Buddhism	127(29.1)
	Paganism	186(42.7)
	Others	4(0.9)
Number of Children	1	26(6.0)
	2	304(69.7)
	3	80(18.4)
	4 or More	24(5.4)

4.2 조사대상자의 가족주의 가치관의 일반적 경향

조사대상자가 지각한 가족주의 가치관 수준을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효의식이 4.3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부부평등의식이 3.51점, 혈연공동체의식이 2.87점, 가족우선의식이 2.64점, 부계가족영속화가 2.4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The General Tendency of Familism Values

		N=436
Division		M(SD)
Familism Values	Family-First Consciousness	2.64(0.55)
	Succession of Patrilineal Family	2.41(0.69)
	Filial Piety	4.35(0.67)
	Sense of Community in Blood Relationship	2.87(1.02)
	Equality Consciousness of Husband-Wife	3.51(0.40)

4.3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가족주의 가치관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전반적 가족주의 가치관을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자의 연령변수와 학년변수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가족주의 가치관은 연령의 경우 25세 미만 대학생 집단보다 25세 이상 대학생집단이 보수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주의 가치관은 학년변수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학교 1학년, 2학년 저학년 집단보다 고학년 대학생집단인 3학년, 4학년집단이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3. Familism Value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Variablesz

Variable		Familism Values		
		N	M	SD
Gender	Male	192	2.98	0.47
	Female	239	2.49	0.45
	T		0.64	
Age	Under 20	150	2.61(a)	0.53
	21~22Years	129	2.64(a)	0.47
	23~24Years	74	2.70(a)	0.52
	25~26Years	55	3.06(b)	0.47
	27 Years Old or Older	23	2.99(b)	0.43
	F		11.08***	

Grade	1Grade	150	2.60(a)	0.53
	2Grade	116	2.71(a)	0.49
	3Grade	83	2.78(b)	0.54
	4Grade	82	2.84(b)	0.49
	F		4.07**	
Religion	Catholic	32	2.60	0.59
	Christian	84	2.68	0.54
	Buddhism	125	2.80	0.49
	Paganism	185	2.68	0.51
	Others	4	2.87	0.64
	F		1.65	

*p<.05 **p<.01 ***p<.001

5. 결론

본 연구는 대전, 충청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436명 청년층 남녀를 대상으로 가족주의 가치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성별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20세 이하, 21세~22세, 23세~24세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대학교 저학년인 1학년과 2학년의 비율이 대학교 고학년인 3학년과 4학년에 비해 많았다. 종교는 '없다'라고 응답한 대학생이 가장 많았고, 불교, 기독교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형제자매의수는 '2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둘째, 조사대상자가 지각한 가족주의 가치관 수준을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효의식이 4.3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부부평등의식이 3.51점, 혈연공동체의식이 2.87점, 가족우선의식이 2.64점, 부계가족영속화가 2.4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전반적 가족주의 가치관을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자의 연령변수와 학년변수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족주의 가치관은 대학생 연령의 경우 25세 미만 대학생 집단보다 25세 이상 대학생집단이 보수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이 나타났다. 가족주의 가치관은 학년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학교 1학년, 2학년집단보다 고학년 집단인 3학년,4학년집단이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청년세대의 성장과정에서의 달라진 가족주의 가치관을 살펴보고자 하며, 연구 결과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청년세대에게 가족에 대한 의미를 파악

하여 청년세대를 위한 가족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점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 속에서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면서 다른 측면에서는 서구적인 라이프 스타일 혹은 가치체계를 받아들이는 가족주의가치관에 역동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보수적인 가족역할과 가족의식은 가족의 변화와 사회분위기의 변화로 유연화된 의식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 만큼 가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우리 사회는 대처할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재검점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회환경의 빠른 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오늘날 사회에 맞는 가족주의 가치관을 재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변화하는 가치관에 대응한 가족교육정책의 수립도 필요하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건강한 가족을 육성하기 위해 가족관련 다양한 제도,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화되어가는 가족복지욕구를 사회복지정책적 대응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접근방법과 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늘날 가족주의 가치는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타인 혹은 사회공동체를 지향하는 가치관보다는 개인이나 자신의 가족만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건강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개인의 가치와 더불어 공동체의 가치를 생각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가족의 의미의 변화와 가족주의 가치관의 세대마다 다른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가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질적방법의 연구조사도 필요하다고 본다.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방법으로의 접근이 수행되어야 한다. 급속히 발전하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적용하는 가족의 변화양상도 파악하여 가족지체문제가 발생하기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외국의 경우 오랜 시간동안 수많은 가족담론 속에서 유연하고 안정적인 가족정책을 만들고 사회정책을 수립해 왔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압축적인 경제성장 속에서 사회복지정책은 급속한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채 가족위기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가족위기가 사회해체까지 영향을 미쳐 사회전반의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을 간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변화하는 사회에 가족이 제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욕구를 충족 시킬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적 대응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References

- [1] J. E. Kim, H. G. Koo, "A Study on Consumer Life Analysis and Consumption Stress of X-generation Married Women", Korean Consumption Culture Association, Vol 20, No.4, pp 19-49, 2017.
DOI: <https://doi.org/10.17053/jcc.2017.20.4.002>
- [2] K.S. Han, "Familism of Undergraduates and Consciousness for Supporting Their Parent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37, No.9, pp13-24, 1999.
- [3] S. H. Ok, "Study on Familism in Contemporary Korean Families", Journal of Korean Homemanagement Association, Vol 7, No.2, pp 227-234, 1989.
- [4] C. S. Park, "A Study on the Familism and Sex-ratio in Korea", The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Taegu University, vol 6, No2, pp. 211-228, 1999.
- [5] G. S. Yoo, M. J. Kang, J. E. Yoon, "Young Adults' Family Concepts and Values Among Never-Married In Their 20s : A Comparison of Two Cohorts In 2001 And 2017", Korean Family Studies Association, vol 30, No3, pp. 42-69, 2018.
DOI: <https://doi.org/10.21478/family.30.3.201809.002>

소 권 섭(Kwon-Seob So)

[정회원]



- 2001년 2월 : 건양대학교 대학원 병원경영학과(경영학 석사)
- 2011년 2월 : 건양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 박사)
- 1981년 3월 ~ 2011년 3월 : 김안과병원 원무팀장, 원무부장, 행정부장 역임
- 2012년 3월 ~ 현재 : 건양사이버대학교 보건의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보건의료, 병원행정

배 나 래(Na-Rae Bae)

[종신회원]



- 2010년 8월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석사)
- 2007년 2월 :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족복지학과 (사회복지학 박사)
- 2007년 9월 ~ 2008년 8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술연구교수

- 2008년 8월 ~ 2011년 2월 : 호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초빙교수
- 2012년 3월 ~ 현재 : 건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 문화복지, 문화교육컨텐츠, 문화산업